

전소극장 용 **미리내 재 개관 기념 공연**
원, 투, 소리 시리즈 !!

* 본 공연은 부산시 문예진흥 기금 일부를 지원받아 공연됩니다.

One

부산의 대표 중견 여배우 구민주의 야심작!!!

「영순아, 어디 가니?」

2007년 **8월 23일(목) ~ 9월 23일(일)**

평일 **8시**, 주말·공휴일 **6시** 관람료: 일반 20,000 / 청소년 15,000

작_ 이훈주 / 출연_ 구민주(여성 1인극)



Two

철없는 엄마와 괴팍한 처녀가장 딸의 가슴 뭉클한 동거!!!

「로망스2」

2007년 **10월 10일(수) ~ 11월 11일(일)**

평일 **8시**, 주말·공휴일 **6시** 관람료: 일반 20,000 / 청소년 15,000

출연_ 남현주, 김희지(여성 2인극)



Three

3인 3색의 사랑방정식으로 보는
 웃음과 감동이 가득 전설의 드라마!!!

「죽어서, 셋이서, 혼자서」

2007년 **11월 28일(수) ~ 12월 30일(일)**

평일 **8시**, 주말·공휴일 **6시** 관람료: 일반 20,000 / 청소년 15,000

출연_ 권철, 구민주, 김연주(3인극)



“전 작품 사랑티켓 참가작”

- * 제작 | 극단 아센
- * 주최·주관 | 소극장 미리내
- * 예매처 | 연극나라 아센 <http://cafe.daum.net/acen2000>
- * 연출 | 호민
- * 기획 | 남현주
- * 부산은행전지점 / 부산영화공연사랑 / 바다무대 / 뮤클
- * 후원 | (주)트윈 엔지니어링 / 부산영화공연사랑 / 영진인쇄출판
- * 공연문의 | 051) 504-2544, 011-9346-6484

축하의 글



구민주
미리내 소극장 대표

기적을 이루고 싶다 반드시!!

우리는 항상
주변으로 부터 희망을 본다
주변으로 부터 절망을 본다

그러나
절망스런 주변은 그리 오래 떠올리고 싶지 않다
사랑만 하기에
희망만 떠올리기에 인생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미리내>소극장으로 오던 어느 한 날,
지하철에서 행상을 하는 아저씨 한사람을 보았다
한 쪽 팔은 뭉통하고
다른 한쪽은 손가락이 펴지지 않는 상태였다
게다가 한 쪽 다리마저 철제다리로 지탱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아저씨가 사고로 그리 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병의 후유증으로 수술을 한 건지 난 잘 모르겠다
그리고 그것이 궁금한 것도 아니다
비록 지하철에서 상당히 열악한 신체조건으로 행상을 하고는 있지만
내가 그 아저씨에게서 본 것은 희망이자, 의지였다
시종 사라지지 않던 얼굴의 미소는 여유롭기까지 했다

<미리내> 소극장을 인수하여 여름 내내 무수한 땀을 흘렸다
마음고생도 했다 그리 길지 않았던 시간이었음에도....
그러나 드디어 <미리내>소극장은 재 개관을 한다
아직은 열악하고 보잘것없는 미리내에서 극단 아센은 더 나은 내일의 연극적
희망을 위해 의지를 굽히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미리내>소극장을 들어서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기적을 이루고 싶다
돈이 없이도, 권력과 상관없는 아름다운 삶을 꿈꾸는 이들의 희망이 되는 미리내가 되고 싶다
극단 아센은 이러함을 위해 변함없이 고민하고 갈망하며
불특정 다수의 관객과 만나기를 희망할 것이다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의지도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해피엔딩...이는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느냐!..에 달려있다” 는 닥터 리빙스턴의 말을 인용하며
무덥던 여름날 온갖 잡일 마다않고 묵묵히 버텨주는(?) 우리 연주, 희지...

튼튼하고 풍성한 나무들로 자라나길 또한 희망 한다
그리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혈족 같은 호민씨!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주시고,
엄마에 딸 역할까지 해가며 기획일 보느라 수고한 후배 현주! 역시 앞으로도 잘 부탁하고^^

음으로, 양으로 <미리내> 소극장 재 개관을 위해 애써주신
정영도 사장님, 극단 사계 김만중 대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축하의 글

고인의 열정과 의지를 담아서,,,

지난 오월, 느닷없는 한 통의 전화가 가슴을 싸늘하게 만들었다. 다름 아닌 <미리내>소극장의 대표이신 박 범식 선생님의 부음 소식. 달려간 영안실에는 많은 부산연극인들과 고인의 학교 학생들의 울음과 탄식이 끊이지 않았고, 난 너무나 갑작스러운 믿기지 않는 현실에 눈물보다는 어리둥절함으로 하릴없이 소주잔만 비워야 했다. 고인과 함께 작업해온 지난 몇 년 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왜 최근 서로는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할 수 없었는가...하는 후회로 가슴앓이를 겪어야 했다.

<미리내>소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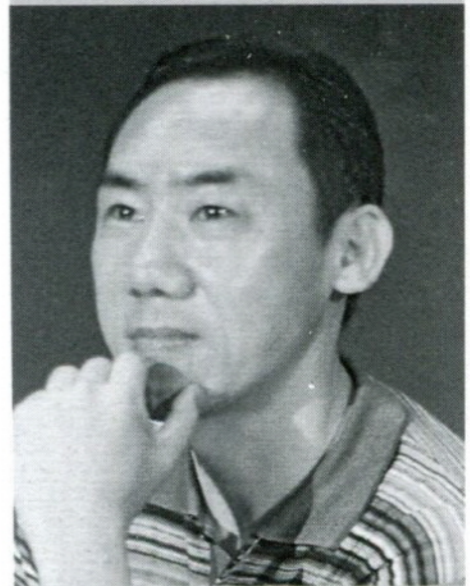
고인이 사직동에 처음 장소를 열었을 때도 선생님의 배려로 “아센”은 함께 했었고 무수히 많은 시간을 소극장과 극 공간에 대한 얘기로 소주잔을 기울이며 마주했었다. 극장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 “아센”의 공연관계와 짐정리 문제로 우리는 자그마한 사무실을 하나 얻어 이사를 나왔고, 공사는 계속 진행되어 마침내 금년 초,매서운 겨울바람을 잠재우며 <미리내>소극장 이라는 작지만 아담한 공간이 탄생되었다. 서울지역의 부산기획공연을 비롯하여 연중 넘쳐나는 많은 연극공연들의 난장 속에 그나마 소극장공간이 확보되어 부산연극 현장인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버젓한 사건이었다. 비록 “아센”은 연이어진 자체공연관계로 간간히 왕래하는 정도였지만 진심으로 기뻐했고, 극장의 무궁한 발전을 염원함과 더불어 고인의 열정과 의지에 존경의 시선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는 불과 반년도 채 못 되어 선생님의 부음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그리고 또,,,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며칠 뒤 <미리내>소극장 인수에 관한 제의를 받았다. 어리둥절한 상황의 연속이었지만 달려간 소극장 안에서 우리는 유가족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마침내 “아센”은 <미리내>소극장을 인수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제, <미리내>소극장은 재 개관을 한다. 지난 몇 달 간의 극장 보수공사와 재 개관 기념공연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겪은 가슴앓이는 굳이 밝히고 싶지 않다. ‘호사다마’라는 성어를 마음에 담고, 오히려 묵묵히 따라준 “아센”의 단원들과 드러냄 없이 힘을 실어주신 고마운 분들과 인연의 끈을 소극장으로 맺어주신 故 박 범식 선생님에 대한 감사함만을 담고자 한다. 우리는 <미리내>소극장이 고인의 열정과 의지를 고스란히 담고 그 유지를 받들어 부산지역 연극현장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기를 갈망하며, 이 공간을 소극장연극의 메카로 만들어나가고자 한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미흡하더라도 욕심내지 않고 차근차근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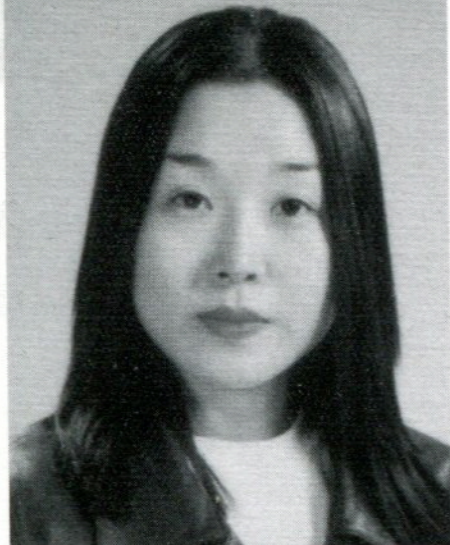
항시 공연이 끊이지 않는 극장, 관객과 더불어 함께하는 <미리내>소극장이 되도록 “아센”은 끊임없는 열정을 보낼 것이다. 재 개관 기념공연 시리즈 첫 시작의 문을 여는 부산의 대표적인 중견여배우 ‘구민주’의 모노드라마는 그런 차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자, 배우 개인과 극단 “아센”의 에너지가 총만히 실린 작품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혹, 극장 어느 한 곳에 머무르고 계실 것만 같은 故 박 범식 선생님께서 그 호탕한 웃음을 뿌리시도록 예쁜 공연을 보여드리고 싶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호 민
극단 “아센” 대표

작가의 글



이 은 주
작가

그는 왜 그렇게 죽음에 가까이 가려고 했을까?

지 금 생각해보면 시간이 제법 흐른 듯하다. 히터를 틀어야했던 약간 쌀쌀한 날, 좁은 아센 극단 사무실에 앉아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작품 이야기를 하면서 연극 <영순아 어디가니>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몇 시간이고 내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던지. 한동안 떠돌던 이야기는 어떤 친구의 죽음에서 멈추었다.

죽음. 누군가는 늘 죽는다. 우리 곁을 늘 맴돌고 있는 죽음. 하지만 그 죽음에 좀 더 가까이에 있던 누군가를 그려보고 싶었다. 그는 왜 그렇게 죽음에 가까이 가려고 했을까? 거기 그 지점에서 뭔가를 찾았던 것일까? 그 해답을 부족하나마 우리 나름대로 작품 <영순아 어디가니>를 통해 찾고자 했다.

더운 날씨에서 불구하고 고생하신 배우 구민주선생님, 연출 호민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작품의 미덕이 있다면 모두 이 두분의 덕분이며 나머지 부족한 점은 전부 나의 탓임을 지면을 빌어 밝힌다.

기획의 글

공연은 계속되어야 한다.



남 현 주
기획

나 에겐 유난히도 일이 많은 여름이었다. 배우와 연출만을 하던 내가 처음 극단 아센 전용 소극장 <미리내>의 기획을 맡고서 많은 의욕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였다. 그동안 현장에서 연극을 만들면서 기획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었던지라 다양한 각도에서의 실험과 도전에 대한 꿈이 있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사적인 문제들에 부딪히면서 내가 과연 기획 일을 맡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일에 전념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중도에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수도 없었다. 하지만 끝까지 나를 믿어주신 극장 대표님과 극단 대표님 덕분에 이렇게 기획이란 이름아래 글을 남길 수 있게 되었다.

나는 항상 공연을 준비하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마주칠 때면 예전 보았던 영화 <물랑루즈>의 한 장면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 듯 말하는 대사가 있다.

"Show must go on!"

극장이 존재하는 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연은 계속되어야 한다.

"365일 조명이 꺼지지 않는 극장"

그 극장이 소극장 <미리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달릴 것이다.

《영순아 어디가니》

연출의도

만성자살증후군. 얼마 전 모 일간지 해외 기사에 실린 표현이다. 긴장의 연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또는 집단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따돌림 당하는 현대인들의 심리에 작용되는 현대병이라고 한다. 그 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병폐를 일컫는 의미이기도 하며 그 속에서 무의식적 피해의식을 갖고 사는 현대인들의 폐해의 심각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자살증후군이라는 현대인이 지닌 심리의 저변에 나타나는 일상을 통해 자살증후군은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의 몫이 아니라 더욱 아름답고 강렬하게 살기를 우리 모두의 바람임을 담고 싶었다.

줄 거 리

구영순은 자살한 자들이 도착하는 중간지대에 와서 죽을지 살지를 기다리고 있다. 만성자살증독자인 김영순은 매번 자살을 시도하지만 이렇게 중간지대에 와서는 다시 살아나 또 다시 자살을 결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구영순은 어린 시절 중병에 걸린 어머니를 간호하기 위해 죽어서 천사가 되고 싶어했다. 그래서 동네 약장수에게 약을 얻으러 갔다가 그를 따라 도시로 나온다. 약장수 영감은 영순에게 동반자살을 권하지만 영순은 몰래 약을 입안에 숨기고 영감의 죽음을 목격한다. 영순의 꿈은 드라마에 나오는 비서가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작은회사에 비서가 되지만 사장부인의 오해로 사장과 불륜관계로 몰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3층에서 뛰어 내린다. 자신의 결백은 증명이 되었지만 절름발이가 된 영순에게 같은 회사 동료였던 김대리가 청혼을 한다. 결혼생활을 하게된 영순은 죽은 약장수 영감이 보이는 등 정신적인 문제를 겪으면서 두 번의 자살시도를 하고 이혼을 당한다. 이 과정에서 영순은 자신은 진정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강렬하게 살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깨달고 서울로 가서 자신을 재미교포 최세진으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한다. 대기업 비서로 취직하고 예전에 비해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자기기만의 극치를 달리게 된다. 하지만 약장수 영감의 죽음을 조사하던 형사가 영순 앞에 나타나자 영순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술에 빠져 다시 죽음을 꿈꾼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간지대에 와서 자신이 다시 살아가지 못하고 진짜 죽었다는 사실에 놀라며 늘 죽음을 향해 달리던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를 한다.

배우 프로필



구 민 주
(구영순 役)

- 現 미래내 소극장 대표
- 1990년 경성대학교 연극영화과 졸업
- 1998년 부산연극제 최우수 연기상
- 2001년 부산연극제 우수여자 연기상
- <여자들이름은 이순례>
<이혼의 조건>
<불 좀 꺼주세요>
<날 보러와요>
<묘지클럽>
<여보세웁! 누구세요?> 등 다수작품 출연

배우 프로필



남 현 주 (엄마 役)

- 1996년 경성대학교 연영과 졸업
- 2002년 동 대학원 졸업
- 동서대, 경성대 출강
- 現 극단 아센 기획실장
- 극단 신우 정단원
- < OFF STAGE > < 멈춤 >
- < 웨딩드레스 > 외 출연
- "천국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 아동극 < 파란 별나라 여행 >
- < 하늘을 나는 우산 >



김 희 지 (딸 役)

- 극단 아센
- 동서대 휴학중
- < 둘이서 셋이서 혼자서 >
- < 도불유희 >
- < 아바가일의 파티 >
- < 장미를 삼키다 > 출연

《로망스 2》

연출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수많은 엄마와 딸들. 때로는 한 가정의 어머니로, 또는 자식으로서 때로는 친구와도 같이 희망과 아픔을 감싸 안으며 살아가는 그녀들. 그러나 그녀들의 내부로부터 솟구치는 상대에 대한 강렬한 사랑과 애정은 때때로 같은 듯 달리 살아온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음과는 달리 서로에게 생채기를 내며 살지는 않는가?

두 모녀의 삶과 인생, 사랑의 방식에 대한 아름다운 담론을 통해 진정한 신뢰와 애정, 사랑에 대한 의미 있는 감동을 느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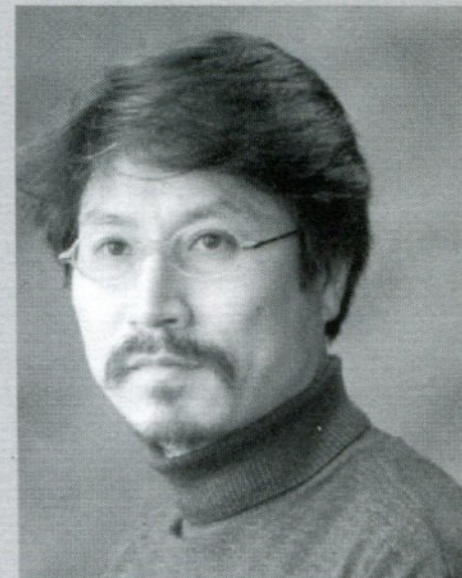
줄 거 리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사는 엄마와 마흔을 넘기도록 시집도 가지 않은 노처녀 딸. 그녀들은 서로 떨어져 살면서 가끔씩 왕래하며 지낸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들의 사이는 돈독해보이지 만은 않다. 그녀들의 만남은 늘 그러하듯, 시집가라는 엄마의 성화와 주책바가지 엄마에 대한 딸의 무자비한 충고로 일관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각자의 이유 있는 외로움과 서로에 대한 애정과 안쓰러움이 공존하는데...엄마는 시집도 포기한 채 대학 교수직이라도 얻으려 애쓰는 딸이 답답하면서도 안쓰럽고, 딸은 잘난 아들마저 외국으로 이민 보내고 노인대학에 나가며 그곳 노인네들과 데이트나 즐기는 듯 보이는 엄마가 짜증스러우면서도 안타깝다.

서로에 대한 마음과는 달리 서로에게 생채기를 내며 살아가는 그녀들의 인생과 사랑에 대한 삶의 방정식!

《둘, 셋, 하나》

배우 프로필



권 철 (로렌조役)

- 93 부산연극인상
- 98 부산연극제 최우수 남자연기상
- 99 부산연극제 최우수 남자연기상
- 전 01~03 부산연극협회 회장 역임
- 현, 극단 하늘개인날 대표
- 부산연극협회 이사
- 금정구 연극협회장
- 전국 연극인협회 운영위원
- 부산경상대학 출강
- <느낌 극락같은> <아버지>
- <맥베드> <유리동물원>
- <동의보감> <안나크리스티>
- 뮤지컬 <만다라>
- 약극 <홍도야 울지마라> 등
- 50여 작품 출연



구 민 주 (테레사役)



김 연 주 (엘레나役)

- 극단 아센
- 동서대 휴학중
- <마담M의 초상> <도불유희>
- <배비장전> <아비가일의 파티>
- <도덕적 도둑> <장미를 삼키다>
- 출연

연출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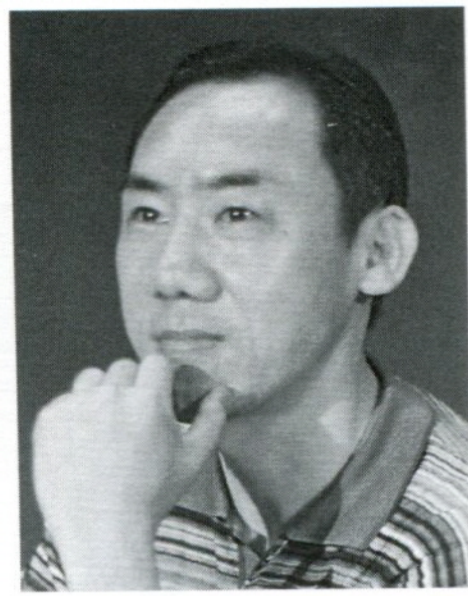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가?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삶의 사명을 이해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자유의지를 파악하는 일이며,
 그것이 타인이나 외부가 아닌 자기 내부분제의 해결을 통해 생의 의미를 깨닫는 일이다.??
 -어느 철학자의 일기 중에서-

3인 3색의 서로 다른 사랑방식이 빚어내는 웃음과 감동이 깃든 전율의 드라마!!!
 자유로운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소유욕과 존재욕을 부각시켜 이 시대의 사랑관에 역설적 질문을 던지는 본 작품은 아름답고 재치있는 언어로 조율하는 자연스러운 극 대사 의 묘미와인물간의 심리적인 이중성이 인물성격화의 양상들로 극화 되어 그 깊이와 아름다 움을 발산하는 수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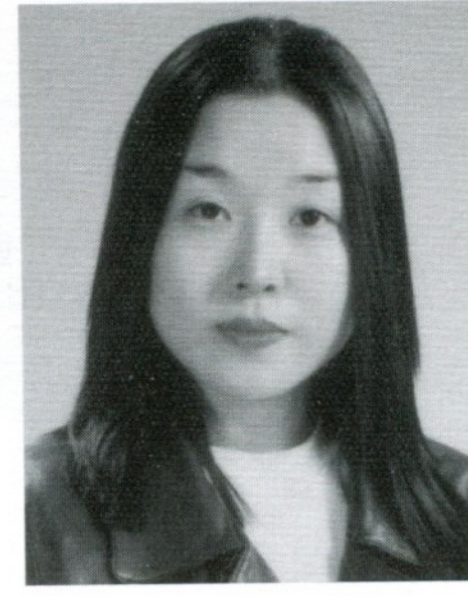
줄거리 & 인물군상

남편과 이혼하여 위자료로 물려받은 저택에서 혼자 살고있는 ‘테레사’의 집에 유학을 준비 중인 무용 강사 ‘엘레나’가 방문한다. ‘테레사’는 남편과 이혼 후 홀로 지내는 외로움과 불안을 견디지 못하여 방세 대신 집안일을 거들며 말벗이 되어줄 입주자를 원했고, ‘엘레나’는 금전의 여유가 빠듯하지만 붙임성 좋고 쾌활한 성격의 소유자로 서로의 조건이 부합된다. 그녀들은 서로에게 만족하여 대화를 나누고, ‘테레사’는 자신의 불우했던 어린시절과 ‘로렌조’와의 만남과 사랑, 결혼, 그리고 이별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며 여전히 ‘로렌조’를 그리워하는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는다. 그 와중에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두 사람. 어느 날, ‘테레사’가 집을 비운 사이 ‘로렌조’가 방문하게 되고 ‘엘레나’는 도발적인 욕구를 펼쳐내면서 ‘로렌조’와 현실적인 사랑에 빠지게 된다. ‘엘레나’가 집을 나가기로 한 날, 그녀는 자신과 ‘로렌조’가 사랑하는 사이라고 고백하고, 모든 희망과 신뢰를 상실한 ‘테레사’는 제어할 수 없는 배신감으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끝내는 ‘엘레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스텝 및 단원



호민
연출



이은주
<영순아 어디가니>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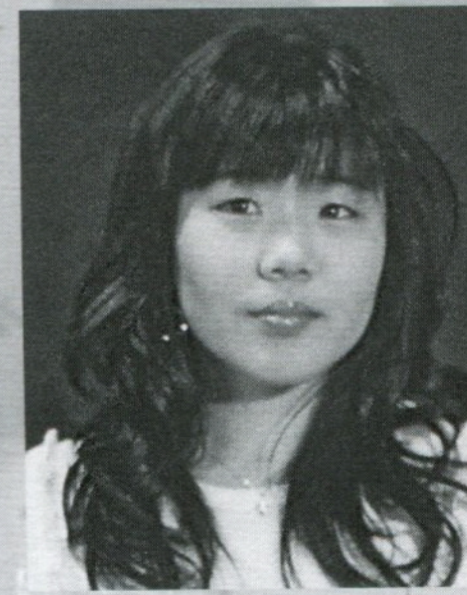
남현주
기획



김옥련
안무



황지현
음악



김연주
조명op



김희지
음향op

